

김관영 지사, 행복복지 실현 위한 포럼 개최

부지사·실·국장·출연기관장·직원 70여명 토론... 이재원 한국지방재정학회장, '사회복지와 지방재정' 특강

김관영 도지사가 행복복지 실현을 위해 전문가 초청 특강과 토론 등 직원들과 함께 공부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전북도는 16일 '8월 새로운 전북 포럼'을 개최, 김관영 도지사가 아침 7시 30분부터 8시 50분까지 도청 중회의실에서 부지사, 실·국장 등 간부 공무원과 관련 출연기관장 및 직원 70여 명과 함께 '사회복지와 지방재정'이라는 주제로 공부하고 열린 토론을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한국지방재정학회 이재원 회장 특강, 토론 및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지방재정과 지방정부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사회서비스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지적해 주셔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어떻게 잘 역할을 분담할지,



김관영 도지사가 행복복지 실현을 위해 전문가 초청 특강과 토론 등 직원들과 함께 공부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 우리 지방정부가 하고자 하는 사회 서비스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재원 부담이나 재원확보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특강 강사로 나선 한국지방재

정학회 이재원 회장은 '사회복지와 지방재정'이라는 주제로 열린 강의를 진행했다.

이 회장은 "현재 지방재정의 30%는 복지지출로 재정이출류되는 지속적인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문제는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복지사업의 90%는 보조사업으로 복지보조사업의 재원분담과 운영체계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지방재정여건과 관계없이 전국 동일한 복지가 보장되어야 하는 경우 중앙정부의 국가사무로 전환이 필요하고, 지역별 다양성을 활성화하는 서비스는 지방정부 자체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현금급여 기초복지 국가전환의 진행상황, 사회서비스분야의 혁신 전환 내용 등 다양한 내용의 질의 응답이 진행됐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매월 '새로운 전북 포럼'을 개최해 인공지능, 바이오, 신산업, 일자리·경제, 농생명, 문화·관광 기타 분야별 최신 이슈에 대한 전문가 특강과 토론을 통해 직원들의 시야를 넓히고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주민 동의없는 소각장 절대 안돼"

유희태 원주군수, 소각장 추진 관련 "주민 입장에서 철저히 대응할 것"

유희태 원주군수가 민간업체에서 각 각 추진 중인 봉동읍 구암리 사업장폐기물 소각장과 상관 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과 관련, 주민들의 입장에서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 군수는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각장에 대한 지지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주민이 반대하고, 주민의견 수렴이 없는 소각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전북지방환경청에 주민들의 반대 입장도 원주군의 의견도 함께 재차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봉동 구암리 폐기물 소각장은 지난 6월 말 전북지방환경청에 사전심사 청구서가 접수됐으며, 사전심사 청구서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사전검토가 진행 중이다.

지정 및 일반폐기물 소각시설로 일 189.6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으로 원주군에서 하루 발생하는 폐기물은 약 21톤에 불과해 나머지 물량은 외부에서 반입된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전심사 청구서 접수 사실이 알려지면서 산재물, 봉동읍 주민들은 둔산리, 봉동읍 소재지와 삼봉지구 등 아파트 곳곳에 소각장 반대 플래카드를 설치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상관면 신리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2021년 5월에 최초 사업계획서가 제출



원주군수 유희태는 소각장 추진 초기부터 소각장 설치 반대 탄원서 제출, 전북지방환경청 광장 반대시위 및 삭발식, 전북지방환경청장 면담 실시, 상관면 일대에 소각장 반대 플래카드 설치 등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업체 측이 지속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갈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 군수는 "민간업체의 소각장 설치 추진으로 인해 우리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원주군 입장과 주민 반대 의견을 적극 알리려 주민들이 환경문제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동의 없는 소각장 추진은 동의할 수 없다"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원주군의 입장을 전달해왔으며, 앞으로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해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 취업연계형 디지털 부트캠프 운영

전북도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자립준비 청년들의 디지털 전환을 집중하여 지원하는 교육운영체인 '전라북도 취업연계형 디지털 부트캠프'를 전국 최초로 진행한다.

캠프 일정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4박5일이고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18에서 24세의 자립준비청년 50명이다.

남원 컨벤션호텔에서 교육하고, 마지막 발표와 시상식은 전북도청에서 진행된다.

전북도는 지난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북 디지털 문제해결센터 사업에 선정되어, 도내 자립준비청년 및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디지털 기반의 맞춤형 교육 및 진로설계 컨설팅을 추

진해왔다. 교육유형은 자립준비청년 대상 4박5일 부트캠프 형태와 지역별 온라인과 오프라인 형태로 교육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최하고 전북도가 주관하며, 전주, 군대어비스 전북지역본부, 전북테크노파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으로 구성된 전북청소년디지털역량지원협의체가 협력하여 운영한다.

캠프 참가자는 평균 100시간 내외의

디지털 실무 관련 교육을 이수하며,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진로 체험, 진로 설계, 취업연계 교육 등으로 구성하여 청년들은 캠프를 통해 디지털 진로 방향성 및 진로탐색, 미래설계 방향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부트캠프 모집기간은 지난달 28일에서 이달 17일이고, 이메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캠프 참여 선발자는 18일 홈페이지 발표와 개별 이메일로 전달한다.

2023년 전주교육대학교 · 우석대 · 군산대 2학기 원광대 · 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모집

스피치 · 긴장해소 · 표현력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최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우려면 역시 김양욱입니다. 현대인의 인기과목에 맞설수 있지 마시고 상담을 바랍니다.

전담교수 김양욱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전북대학교 토론과 면접(교양과목) 담당교수 역임
- 한국스피치·유변형회 전북회장
- 전주매일신문사 부사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 인기 강사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 TBN 출연 및 강의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 평생교육사 · 심리상담사
- 심리상담사 · 스피치 · 시낭송 지도자
- 저서 "365 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말, 말" "스피치노하우" 등

학교명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스피치웃음코칭(주, 야간)	전주, 임실, 완주, 김제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코칭(주, 야간)	전주, 완주, 진안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기법과 리더십, 스피치웃음코칭(주)	익산, 논산, 김제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과 리더십(야), 스피치지도사(수)	군산, 서천, 부안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 고급, 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웃음코칭 등)(주, 야간)	정읍, 고창
남원스피치 평생커뮤니티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	남원, 장수, 순창

상담전화: 285-6676, 010-7304-5665(주, 야)
※ 수시 선착순 모집해 9월에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

재중 도민 자녀, 8·15 의미 되새겨

전북도 중국사무소, 광복절 맞아 항일투쟁 역사유적 탐방

전북도 중국사무소(이하 중국사무소, 소장 정순택)는 8월 15일 광복절(78주년)을 맞아 재중 전라북도 도민 자녀를 대상으로 역사, 국가 그리고 고향에 대하여 고민하고 고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지난 14일부터 3일간 항저우, 자싱, 상하이에 새겨진 우리나라의 항일투쟁 역사유적 탐방을 진행했다.

중국사무소는 코로나19로 인해 이동제한이 심했던 지난해에도 재중 도민 자녀를 목적으로 하얼빈 안중근의사기념관 등 중국 동북지역 역사탐방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의 높은 관심과 호응에 힘입어 재중 도민 자녀들을 대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제2회 한국 역사탐방을 추진하게 됐다.

올해 역사탐방은 상하이와 그 인근 지역의 항일역사유적 방문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상하이는 중국의 경제, 금융의 중심지인 한편 우리 독립투쟁의 역사와 관련해서는 일제 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고 많은 운동가가 독립투쟁을 위해 머물렀던 곳으로 항일투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

상하이에서 학생들은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방문하여 참배했다. 기념관 매인(梅園)은 1932년 4월

상하이 흥구공원(현재 투선공원)에서 열린 일왕 생일축하 기념식 및 일본군 상하이 점령 경축식 행사에 폭탄을 던져 일본군 수뇌부를 폭사시킨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기념하여 건립된 곳으로 의사의 생애 사적이 전시돼 있다.

또한, 윤 의사의 의거 직후 김구 선생이 일제 탄압을 피해 상하이를 떠나 저장성 자싱 지역으로 피신하여 피난처로 이용했던 곳에 만들어진 김구 기념관과 선생의 산책길, 독립운동가들의 항일투쟁 활동과 기록물을 전시한 항저우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등 역사유적을 방문하여 제국주의하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 희생한 독립운동가 그리고 대한민국 광복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이번 역사탐방을 준비한 정순택 전북도 중국사무소장은 "재중 전북도민 자녀들이 항일투쟁에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신의 생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역사 의식과 희생정신을 배우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려 깊은 생활을 해주기를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

전북도는 농지의 소유·이용실태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16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2만 2,759ha(15만6,664필지)에 대한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최근 5년 이내(2018년~2022년) 농지취득자 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1만 3,145ha), △관외거주자 취득농지(7,476ha)와 △농업법인 소유농지(1,216ha) △외국인 소유 농지(72ha)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농업법인 소유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실제 농업경영 여부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권자 중 농업인 비중이 3분의 1 이상 여부, 농업인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 준수여부도 중점 점검한다. 또한, 농지 소유자의 경작 사실을 조사하여 불법 임대차 및 무단 휴경 등을 적발하고, 농지법 위반 사실 적발 시 즉시 설치와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의 농업 경영 여부 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처분의무를 통지하고 시정되지 않을 시 처분명령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는 6개월 내에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중 최고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농지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농지처분의무 부과 후, 농지소유자가 1년 이내에 성실경작하는 경우에는 3년간 처분명령이 유예되고, 유예 기간이 지나면 처분의무가 소멸된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와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동안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 취득 후 사후관리를 지속 강화해 비농업인에게 농지가 투기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헌법에 따른 경자유전원칙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